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8.5

AUGUST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달러 환율

1,432.50원 (+2.70원)

KOSPI

6,358.95 (+101.50, +1.62%)

KOSDAQ

780.72 (+43.37, +5.88%)

국고채 10년 금리

4.260 (-0.004%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미국 CPU 반도체 TOP10 [박승진]
실전 퀀트	디레버리징의 끝, 알파의 시작 [이경수]
월간 하나채권	[8월] 긴축의 정점은 아직 [박준우]
ETF Weekly Letter	AI 수익화 기대감 상승 [장치영]

기업분석

강원랜드	아쉬운 실적이나 높은 주주 환원 기대 [이기훈]
GS파엔엘	완벽한 서프라이즈 [이기훈]
리가캠바이오	해 뜨기 전의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중(NDR 후기) [김선아]
대우건설	건설 실적 서프라이즈 [김승준]
삼성증권	2Q26 Re - 판관비 증가로 인한 컨센 하회 [고연수]

산업분석

통신 장비	엔비디아의 통신 시장 진출은 큰 기회 요인입니다 [김홍식]
건설	2026년 세제개편안 [김승준]

글로벌리서치

팔란티어	미국 사업 모멘텀 강화, 전망도 대폭 상향 [김재임]
이턴코퍼레이션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 [김시현]
슈나이더일렉트릭	약점을 극복하는 중 [김시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기, 한국금융지주, BNK금융지주, CJ제일제당, 종산,
두산퓨얼셀, 제닉

하나증권

2026년 8월 4일 | Global Asset Research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New K-ETF

미국 CPU 반도체 TOP10

신규 상장 ETF(8/4)

- KODEX 미국 CPU 반도체 TOP10

KODEX 미국 CPU 반도체 TOP10: AI Agent의 시대에 수요가 증가하는 CPU 반도체 관련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AI 산업의 중심이 챗봇에서 AI Agent 시대로 이동함에 따라 활용도가 확대되는 CPU 반도체 기업들에 집중하는 형태이다.

챗봇은 GPU를 활용한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핵심이었으나, AI Agent는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도구를 호출한 뒤 결과를 검증하며 여러 단계를 반복 수행한다. 상기 과정에서는 각 작업의 실행 순서를 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조율의 역할이 중요해지며,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CPU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즉, AI가 단순히 계산 성능을 높이는 단계에서 복잡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함에 따라 CPU와 GPU의 중요성도 점차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KODEX 미국 CPU 반도체 TOP10'은 이러한 변화 가운데 수혜가 기대되는 10개의 CPU 반도체 종목들로 구성된다.

먼저 유동성 조건(시총 100억달러, 평균 거래대금 천만달러)을 충족시키는 미국증시 상장 기업들 가운데 CPU, Compute, AI Silicon, Agentic AI Models, Manufacturing & Packaging, Design Software 관련 테마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종목들을 추려낸다.

이어 CPU, x86, Datacenter CPU, OSAT, Pure-Play Foundry, EDA Platform, IC Design Tool, Chip Design Software 등의 키워드를 반영한 스코어링 작업을 진행한 후에, 각 테마 키워드별 기준점수 미달 종목들을 편입 대상에서 제거한다. LLM 기반의 키워드 유사도 점수 30%와 시가총액 점수 70%를 합산하여 상위 10개 기업들을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별 종목의 편입 비중은 키워드 유사도 점수(75%)와 시가총액(시총) 점수(25%)를 합산해 결정된다. 우선 키워드 유사도 점수를 기준으로 종목을 4개 Tier로 구분한 뒤, LLM 평가에서 75점 이상을 획득한 종목 수에 따라 Tier별 기본 비중을 차등 배분한다. 동일 Tier 내에서는 LLM 평가 순위에 따라 비중을 차등 적용하며, 각 Tier는 최대 3개 종목까지만 편입한다. 이후 시가총액 점수를 반영해 편입 비중을 조정하되, 시총 점수에 따른 추가 가산 비중은 종목당 최대 5%로 제한한다. 최종 편입 비중에는 25%의 Cap Rate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상장일(8/4) 기준의 포트폴리오는 CPU 반도체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ARM, AMD, 인텔을 총 75% 가량의 비중으로 편입하여 주요 종목에 무게중심이 집중되는 형태로 구성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6월/9월/12월 첫번째 금요일)에 걸쳐 진행된다. 0.5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패시브 ETF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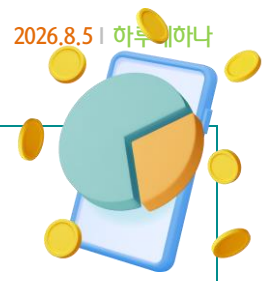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도표 1. KODEX 미국 CPU 반도체 TOP10 ETF의 종목 개요

ETF명	KODEX 미국CPU반도체TOP10
상장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기초지수	Indxx US CPU Semiconductor TOP 10 Index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총 보수	0.55%
구성종목 수	10종목
비중결정방식	- 키워드 유사도(75%): LLM 점수 기반 티어별 차등 배분 (티어당 최대 3종목) - 시가총액 점수(25%): 종목별 최대 5% 제한 (초과분은 타 종목 비례 재배분)
정기변경	연 4회 (매 3, 6, 9, 12월 첫 번째 금요일)

자료: KRX, 하나증권



디레버리징의 끝, 알파의 시작

실전 퀀트 | 2026.08.05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변동성 끝자락에 알파의 시기 도래

공매도 상위 및 추가 낙폭과대 등 지수 반등 시에 유리한 종목군과 MSCI KOREA 전략

- 지난 7월은 상반기 성과에 대한 언와인딩·로테이션 특성의 고유 계절성과, 상반기 과도한 레버리지 누적에 따른 반도체 변동성 확대가 맞물리며 계절적 특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됐던 시기였음. 현재는 그 국면에서 벗어나는 흐름 감지
- 특히 글로벌 변동성을 야기했던 한국 증시 내 디레버리징이 급격히 나타나면서 향후 변동성 완화의 토대가 마련. 국내 상장 기업의 신용용자와 대주 합산이 6월 42조원에서 현재 29조원까지 하락했으며, 최근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반대매매가 막바지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 ETF 수급 측면에서도 반도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보다 지수 관련 ETF로의 유입이 더 커지는 변화가 관찰되어 수급의 응집력이 재생되고 있으며, 전일 코스피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와 지수 상승이 동반되는 조합(개인 지수 기여도 상승, 올해 지수 상승의 원천)이 오랜만에 확인
- 또한 전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부동산을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을 잃게 만드는 수준의 강도였음. 기존 정부의 목표대로 구조적으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를 은은히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8월의 계절성은 하반기 성과를 위한 알파 베팅 경향이 뚜렷해지는 시기.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7월 말을 기점으로 낙폭이 과했던 고성장주 중심의 알파 베팅으로 전환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에도 8월 들어 빅테크 반등세가 이를 뒷받침하는 흐름
- 다만 이 국면에서 한국 증시는 미국발 반등의 온기를 직접 받기보다는 추가 하락 압력이 제한되는 하방 경직성이 먼저 확인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한국의 언더퍼폼은 과거 미중 무역전쟁 초기 국면(2018년)과 구조적으로 유사. 당시 미국이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동안 한국은 외인 매도세와 함께 독자적인 추가 하락을 이어갔으며, 저점 확인의 시그널은 결국 외인의 매수 전환
- 이번 국면도 그 구조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 코스피의 추세적 반등은 한국의 BM대비 언더웨이트로 자극되는 외인의 리밸런싱 성격의 매수, 즉 지수 저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외인 매수가 확인된 이후에야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
- 그때까지는 지수 전체보다는 코스닥 및 개별 종목 중심의 알파 베팅이 시장의 주류 전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리비전 팩터가 부활하는 8월 계절적 특성과도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음
- 알파 1. 지수 급락 후 유리했던 공매도 상위, 추가 낙폭과대, 개인 순매수 상위, 이익 상향 등에 기반, 엘앤에프, 한화오션, CJ,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SKC, 한화, 에이피알 등
- 알파 2. MSCI KOREA 지수 편입 이벤트(종목수 감소 가능성), 8월 리뷰에서는 LG이노텍 편입(중간 이상 확률), HLB 및 LGD, 유한양행 편입 가능성, 11월 MSCI를 대비한 현대오트모버, LS, 삼성E&A, 레인보우로보틱스, 삼성증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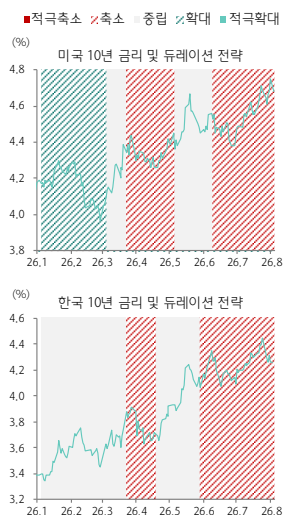
2026년 8월 4일 | Global Macro Strategy

Fixed Income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중립	확대
미국		●	
한국			

주: 6/8 기준. ●는 직전(6/4) 전망



월간 하나채권

[8월] 긴축의 정점은 아직

- 금리의 추세적 하락은 AI 투자가 위축되거나 금융환경이 긴축돼야 가능하나 어느 쪽도 아직. 금리 '레벨'보다 긴축 '추세'에 집중해 국채 투자 의견 '축소' 유지
- 미국: 말보다 행동이 필요. 완만한 인상이 오히려 장기금리 급등을 막는 길
- 한국: GDP 갭 (+) 전환에 미국의 인상까지. 추가 하락만으로는 금리 하락이 어려움

Monthly Viewpoint: 금리가 '추세' 하락하려면

금리는 유가와 방향성을 같이하지만, 1~2개월 단위로 보면 레벨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인플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전망 상향의 영향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금리의 추세적 하락은 성장세가 꺾여야 가능하다. 한미 성장의 공통 축은 AI 투자다. 빅테크의 실적 개선과 Capex 가이드라인 상향을 고려하면, AI 투자가 자발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은 낮고, 주가지수와 크레딧 스프레드가 보여주듯 금융환경은 이를 강제로 꺾을 만큼 긴축적이지 않다.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며 경제가 그 충격을 얼마나 견디는지를 시험하는 단계가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한국은 미국이 인상을 시작하면 긴축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금리 '레벨'보다 긴축 '추세'에 집중하여 듀레이션 '축소' 전략을 유지한다.

미국: 완만한 인상이 장기금리 급등을 막는 길

- 1) 매크로 - 투자 사이클은 강해지고, 실업 리스크는 감소하고
- 2) 통화정책 - Cheap Talk. 행동 없는 물가안정
- 3) 채권시장 - 2회 인상 반영 시 10년 금리 적정 레벨은 4.7%

한국: 이제 미국의 인상 리스크도 반영해야

- 1) 매크로 -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경제는 견조
- 2) 통화정책 - GDP 갭 플러스에 미국의 인상까지 덮치면
- 3) 채권시장 - 추가 하락만으로 금리 하락이 어려운 이유

투자 전략 및 금리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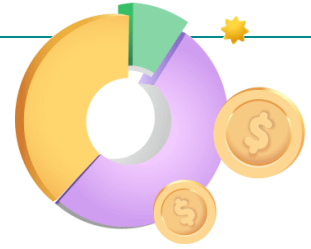
- 1) 국채 투자 의견 - 미국 '축소' (6/8 제시), 한국 '축소' (5/28 제시) 유지
- 2) 미국 9, 3월 인상, 한국 8, 11, 2월 인상 전망. 연말 미, 한 10년 금리 각 4.70%, 4.40%



채권 Strategist 박준우, CFA
junoopark@hanafn.com

ETF Weekly Letter

HANA Global Weekly | 2026.8.4



Global ETF 장치영 chiyoung.jang@hanafn.com

AI 수익화 기대감 상승

소프트웨어에 대한 달라진 시선

- AI 수익화 가능성 확인** 지난주 미 증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강세에 힘입어 주요 지수 모두 상승 마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 기조가 확인되며 기술주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음. 업종별로는, 경기소비재와 금융이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 아마존은 AI 수익화 가능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하며 경기소비재 업종 상승에 크게 기여. 금융업종은 대형 은행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 결과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수익 기대감이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 반면, 금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틸리티, 부동산은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 테마별로는 그동안 AI 밸류체인 내에서 소외받았던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모습.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계기로 AI 서비스 수익화 기대감이 높아지며 IGV, CIBR 등 소프트웨어 관련 ETF 강세 시현
- 방어력 높이기** 자산군별 ETF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 ETF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 회복되며 주식형으로 자금 유입이 회복되는 모습. 원자재 ETF의 경우 7월 FOMC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강화됨에 따라 금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 현상 관찰. 테마별로는 반도체로 가장 높은 강도로 자금이 유입. 최근 조정으로 가격 부담 낮아진 상황 속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이후 AI 인프라 투자 확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매수세 확대. 이에 전력 및 인프라 관련 테마로도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며 여타 원자재와 달리 산업용 수요가 높은 구리 관련 ETF로도 자금 유입. 한편, 국내에서는 높아진 증시 변동성에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ETF로 자금 유입 확대되는 모습. 변동성을 수익화할 수 있는 커버드콜 ETF와 금융, 보험, 고배당주 관련 ETF가 자금 유입 상위권에 위치
- Issue SpaceX**는 8월 4일 장 마감 이후 첫번째 실적을 발표. 이에 따라 첫번째 실적 발표 일정과 연동된 락업 물량이 8월 6일부로 해제될 예정. 해당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 대비 약 7%로 SpaceX 유통 비율은 4.2%에서 11.2%로 확대됨. 한편, 별도의 조건부 물량의 경우 조건 미달성(실적 발표 전 10거래일 중 최소 5거래일 주가 \$175.5 이상 달성)으로 해제되지 않고 남은 락업 일정에 따라 이연될 예정. 이번에 확대되는 유통 비율은 나스닥 100 지수의 3분기 리밸런싱 시점(9월 18일 예정)에 반영될 전망. 이에 따라 8월 6일부터 9월 중순 지수 반영 사이 약 6주간은 매도 압력이 우세할 수 있는 구간. 다만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며 낮아져 있어 매도세는 제한될 가능성

SpaceX 락업 해제 일정 및 단계별 유통 비율

단계	유형	해제일	해제 비율	유통 비율	
상장	공모투자자	2026년 06월 12일	4.2%	4.2%	
2Q26 실적 발표		2026년 7월	7%	11.2%	
조건부 해제	180일 락업 그룹	2026년 7월	3.5%	조건 미달성	조건 달성시
D+70		2026년 08월 20일	2.4%	11.2%	14.7%
D+90		2026년 09월 09일	2.4%	13.7%	17.1%
D+91	내부자	2026년 09월 10일	0.5%	16.1%	19.6%
D+105		2026년 09월 24일	2.5%	16.6%	20.0%
D+120	180일 락업 그룹	2026년 10월 09일	2.5%	19.1%	22.5%
D+135	+	2026년 10월 24일	2.5%	21.6%	25.0%
3Q26 실적 발표	내부자	2026년 11월	2.5%	24.1%	27.5%
D+180		2026년 12월 08일	9.9%	34.1%	37.5%
4Q26 실적 발표		2027년 2월	2.5~6.1%	40%	
D+280		2027년 03월 18일	2.7%	43%	
1Q27 실적 발표	주요 기관 투자자	2027년 05월	1.3%	44%	
D+340		2027년 05월 17일	2.7%	47%	
D+366	일론 머스크	2027년 06월 12일	1.3%	48%	
			51.6%	100%	

주: 조건부 해제 물량은 조건 미충족 시 D+180에 잔여 물량과 함께 해제

자료: SpaceX, 하나증권

2026년 8월 5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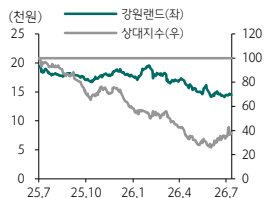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19,000원(하향)
현재주가(8.04) 14,5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358.95
52주 최고/최저(원)	19,530/14,110
시가총액(십억원)	3,102.1
시가총액비중(%)	0.06
발행주식수(천주)	213,940.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636.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7
외국인지분율(%)	9.31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량애공업공단	36.27
강원도개발공사	5.3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486.1	1,522.5
영업이익(십억원)	223.2	231.3
순이익(십억원)	296.9	298.5
EPS(원)	1,388	1,395
BPS(원)	20,477	21,076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426.9	1,476.7	1,476.0	1,494.7
영업이익	285.8	235.3	218.9	197.5
세전이익	565.3	389.4	350.2	339.6
순이익	456.9	318.2	269.7	258.1
EPS	2,136	1,487	1,261	1,206
증감율	34.09	(30.38)	(15.20)	(4.36)
PER	7.48	12.74	11.50	12.02
PBR	0.83	0.97	0.73	0.71
EV/EBITDA	6.30	2.81	0.24	1.18
ROE	12.08	8.11	6.73	6.32
BPS	19,154	19,583	19,964	20,290
DPS	1,170	950	950	1,00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강원랜드 (035250)**아쉬운 실적이나 높은 주주 환원 기대****2026년 예상 P/E 11배**

본격적인 리뉴얼에 따른 실적 부진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실적 부진과 2027년까지 이어질 제한적인 모멘텀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19,000원(-14%)으로 하향한다. 현 주가는 2026년 예상 P/E 11배에 거래 중으로 주가 매력도가 높진 않지만, 최대 14% 내외의 주주 환원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으로 판단한다.

2Q Review: OP 432억원(-37%)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3,456억원(-9% YoY)/432억원(-37%)으로 컨센서스(491억원)를 하회했다. 방문객 수는 56만명(-3%), 드랍액은 약 1.4조원(-2%), 홀드올 24.1%(-0.4%p)를 기록했다. 4~5월 대비 6월부터 트래픽이나 드랍액이 부진했는데, 7월까지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호텔/콘도 합산 매출액은 203억원(-15%)으로 객실 리뉴얼에 따라 객실 수는 41% 감소했지만, 식음 등으로 선방하고 있다. 하반기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비용에서는 경영평가성과금은 회계상 약 7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으나, 명예퇴직금은 27억원 반영되었다. 영업외로는 금융이익이 863억원(+100%)으로 급증하면서 순이익은 1,003억원(+60%)을 기록했다.

올해 주주 환원은 자사주 소각 포함 최대 14% 내외

3월부터 시작된 객실 리노베이션으로 카지노와 객실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당분간은 실적의 상방을 제한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주 환원이 중요한데, 내년 8월까지 보유 자사주 7.4% 소각, 연내 200억원 추가 자사주 매입이 예상된다. 또한, 높은 금융이익으로 전년 수준의 배당(950원)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최대 14% 내외의 주주환원율이 예상된다. 또한, 폐광기금 부과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배당 상승도 가능하다.

2026년 8월 5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목표주가(12M) 67,000원

현재주가(8.04) 40,2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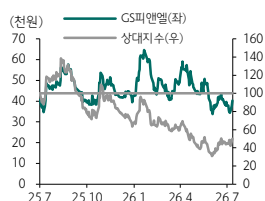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358.95
52주 최고/최저(원)	64,600/33,700
시가총액(십억원)	798.2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19,830.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1.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1
외국인지분율(%)	11.02
주요주주 지분율(%)	
CS 외 1인	58.62
국민연금공단	6.0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15.2	670.9
영업이익(십억원)	122.5	144.7
순이익(십억원)	81.7	100.0
EPS(원)	2,723	3,398
BPS(원)	45,589	48,49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8.3	481.7	612.6	667.4
영업이익	(0.0)	78.0	131.9	146.9
세전이익	(1.3)	57.5	114.4	132.0
순이익	(0.9)	19.4	61.8	71.3
EPS	(49)	977	3,118	3,597
증감율	N/A	폭전	219.14	15.36
PER	(453.06)	42.99	12.91	11.19
PBR	0.53	0.97	0.88	0.82
EV/EBITDA	265.51	12.92	9.22	8.18
ROE	(0.11)	2.29	7.01	7.60
BPS	42,243	43,168	45,936	48,835
DPS	0	350	700	760



Analyst 이기훈 sacredkh@hanafn.com

GS피앤엘 (499790)**완벽한 서프라이즈****2027년 예상 P/E 11배로 상당한 저평가 구간**

상반기 한국/일본의 중국 인바운드는 각각 321만명(+26%)/206만명(-55%)으로 한일령의수혜는 지속 확인되고 있으며, 최소 하반기까지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최근의 원화강세와 유가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바운드 수요는 지속 견고할 것이며, 이에 반해 공급은 제한적이기에 구조적 ADR 상승 및 실적 레버리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스틴의 상당히 빠른 램프업까지 더해지면서 2027년 연간 영업이익 1,500억원 내외에 근접하는 고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 주가는 2027년 예상 P/E 11배 수준의 저평가이자 연초 대비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다. 어려운 시장 환경을 잘 알고 있지만,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이다.

2Q Review: OP 294억원(+154% YoY)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각각 1,590억원(+42% YoY)/294억원(+154%)으로 컨센서스(250억원)를 크게 상회했다. 참고로 재산세는 138억원(+11억원 YoY)으로 예상 수준이었으며, 세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432억원으로 작년 4분기(최성수기) 313억원도 크게 상회한 것이다. 호텔별 영업이익을 보면 그랜드는 95억원(+37%)으로 4월까지 이어진 연회장 리뉴얼에도 OCC가 91.8%(+2.8%p)으로 상당히 좋았으며, OCC 상승은 곧 고가의 룸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ADR도 10% 이상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웨스틴은 51억원(흑전)으로 9월 재오픈 이후 1년도 되기 전에 그랜드와 비슷한 OCC 91.5%를 기록했다. ADR은 35만원 내외로 추정되는데, 하반기 ADR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 제주는 5억원(+4억원)으로 5월까지 이어진 서관 리뉴얼에도 OCC 77%(-12.6%p)를 기록했다. 나인트리는 76억원(+16%)으로 OCC 88.6%(+1.2%p), ADR은 10% 내외 상승이 예상된다.

3분기 예상 OP는 421억원(+111% YoY)

3분기 예상 매출액/영업이익은 1,622억원(+34% YoY)/421억원(+111%)으로 기존 전망 대비 11% 상향한다. 전술했듯이, 세금 이슈만 고려해도 43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올해 유일하게 호텔 리뉴얼이 없는 분기이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 유가와 환율의 변수가 많아 보수적으로 전망하나, 이보다 좋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026년 08월 0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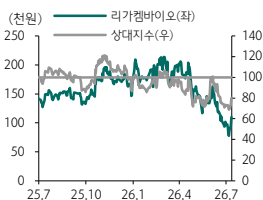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20,000원
현재주가(8.04) 109,900원

Key Data

KOSDAQ 지수 (pt)	780.72
52주 최고/최저(원)	213,500/77,900
시가총액(십억원)	4,068.4
시가총액비중(%)	0.94
발행주식수(천주)	37,019.4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65.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64.9
외국인지분율(%)	12.34
주요주주 지분율(%)	
팬 오리온 코프 리미티드 외 7인	25.93
국민연금공단	5.9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94.7	249.0
영업이익(십억원)	(82.6)	(56.8)
순이익(십억원)	(62.5)	(43.2)
EPS(원)	(1,602)	(1,039)
BPS(원)	12,022	10,947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25.9	141.6	177.7	260.4
영업이익	(20.9)	(106.5)	(134.8)	(55.3)
세전이익	9.1	(93.9)	(134.2)	(63.4)
순이익	7.8	(74.3)	(149.4)	(71.0)
EPS	225	(2,029)	(3,919)	(1,787)
증감율	흑전	적전	적지	적지
PER	484.44	(85.61)	(28.04)	(61.50)
PBR	6.23	12.19	6.28	7.00
EV/EBITDA	(219.86)	(59.28)	(26.19)	(68.37)
ROE	2.04	(13.22)	(25.13)	(11.00)
BPS	17,504	14,246	17,487	15,700
DPS	0	0	0	0



Analyst 김선아 seona.kim@hanafn.com
RA 이희경 hk.lee@hanafn.com

리가켄바이오 (141080)**해 뜨기 전의 어두운 새벽을 지나는 중(NDR 후기)****파이프라인의 개발 단계는 순조롭게 성숙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의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LCB14(ICKS014/FS1502)는 '27년 중국3상 종료 및 허가 신청, 글로벌 P1b상은 12월 SABCs에서 후속 연구 결과 공개(post-Enhertu 중심)를 기대할 수 있다. 2) LCB71(CS5001)은 올해 3월 DLBCL 중간 결과 공개 후 순조롭게 임상 진행 중이고, 9개 cohort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 기존 cohort의 업데이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cohort의 데이터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3) LCB73(ICKS03)은 임상1a상 진행 중이고, 12월 ASH에서 중간 결과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4) J&와 공동개발 중인 LCB84는 P1/2 중 일부 고형암에 대해 하반기 중 2상 용량 확장 시험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상기 파이프라인 외에도 올해 SOT106(LRRC15 타겟), IKS04(CA242), Ono pharma의 LCB97(L1CAM ADC)가 임상1상에 진입하여, 임상1상 중인 파이프라인은 8개, 1/2상 1개, 3상 1개로 증가했다.

파트너십의 기술이전(서브라이선싱)도 기대할 수 있다

ICKS014 데이터를 올해 12월 SABCs에서 공개하면서 서브라이선싱을 추진할 것이다. 기술이전이 성사되는 경우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등을 모두 IKSUDA와 동사가 나눠 갖게 된다. Cstone도 직접 임상3상까지 진행하기 보다 기술이전을 목표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코호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관찰된다면 서브라이선싱이 가능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ADC 기술이전 수가 급증하며 동사의 기술 혁신성과 기술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ADC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것은 Enhertu가 승인 후 1차 치료제로의 확장 및 매출 급증을 보여주었고, 빠르게 ADC를 확보하려는 분위기에서 임상 데이터가 있는 중국 파이프라인이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빅파마는 초기 에셋의 경우 일반적으로 novel target/payload/modality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동사는 Enhertu와 차별화된 linker와 payload로 접근한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목표 주가 22만원 유지, 개발 단계는 분명 성장 중이다

작년 대비 임상 진입 파이프라인 수는 4개 더 증가했음에도 그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Ono약품에 LCB97을 L/O 했던 '24년10월쯤 고점은 132,600원이었다. 이후 첫 환자 투여에 들어가며 '26년7월9일 마일스톤을 수령하였는데, 현재 주가는 그때 보다 20% 낮다. 중국의 ADC 약진 대비 동사의 L/O가 1년 넘게 부재했던 것이 주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컨셉의 링커와 높은 독성을 갖는 페이로드를 적용했고 경쟁 ADC가 많아진 만큼 보여줘야 할 데이터도 많아졌으니 시간이 필요했다. 올 하반기 IKS04, CS5001을 비롯하여 J&의 TROP2 ADC 등 Human Data로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면서, 서브라이선싱 및 옵션 행사 등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2026년 8월 5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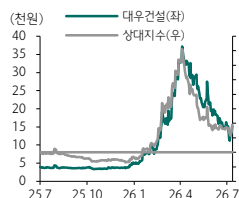
목표주가(12M) 20,000원(하향)
현재주가(8.04) 15,200원

Key Data

KOSPI 지수 (pt)	6,358.95
52주 최고/최저(원)	37,150/3,360
시가총액(십억원)	6,245.8
시가총액비중(%)	0.12
발행주식수(천주)	410,907.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720.5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02.5
외국인지분율(%)	12.60
주요주주 지분율(%)	
중흥토건 외 2인	51.34
국민연금공단	5.7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081.9	8,872.7
영업이익(십억원)	752.2	762.5
순이익(십억원)	497.5	508.1
EPS(원)	1,192	1,219
BPS(원)	9,442	10,670

Stock Price**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503.6	8,054.6	8,166.3	8,179.5
영업이익	403.1	(815.4)	853.6	747.4
세전이익	358.5	(1,208.8)	795.1	626.5
순이익	234.1	(912.3)	610.4	480.5
EPS	563	(2,195)	1,482	1,169
증감율	(54.26)	적전	흑전	(21.12)
PER	5.52	(1.74)	8.97	11.38
PBR	0.29	0.46	1.36	1.22
EV/EBITDA	6.38	(4.82)	7.46	8.02
ROE	5.62	(23.88)	16.59	11.31
BPS	10,569	8,299	9,758	10,928
DPS	0	0	0	0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대우건설 (047040)**건축 실적 서프라이즈****2Q26 잠정실적: 컨센서스 상회**

대우건설 2Q26 매출액 2.0조원(-10.1%yoy), 영업이익 2,323억원(+182.6%yoy)으로 컨센서스(OP 1,600억원) 및 추정치(1,574억원)을 크게 상회했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배경으로 건축주택에서의 마진 서프라이즈다. 2분기 건축주택 GPM이 21.6%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믹스 개선 효과가 있었던 가운데, 정산이익 등으로 약 830억원의 일회성 이익이 반영된 결과다. 일회성 효과를 제거할 시 GPM 15.6%를 기록했다. 플랜트 부문에서는 나이지리아 현장의 공기 연장 간접비를 보수적으로 반영, GPM 3.3%를 기록했다. 2분기 분양세대수는 4,882세대(누적 5,729세대)이며, 연간 가이던스는 기존 17,957세대에서 16,060세대로 하향했다. 2분기 수주는 3.7조원(주택건축 3.7조원)이다. 미분양은 3,989세대로 전분기대비 1,180세대 감소했다.

3Q26 실적 추정: 매출액 2.1조원, 영업이익 1,797억원(OPM 8.7%)

3Q26 매출액 2.1조원(+3.3%yoy), 영업이익 1,797억원(+217.6%yoy)으로 추정한다. GPM을 토목 9.0%, 주택건축 15.0%, 플랜트 12.0%, 연결중속 25.0%로 추정했다. 건축주택 부문은 일회성을 제거한 수준의 마진인 15%대를 하반기에 유지할 것으로 봤다. 이번 실적 특이사항은 수주 가이던스의 상향(공시)다. 기존 수주 가이던스 18조원에서 27조원으로 9조원 상향했다. 상향의 근거는 하반기 수주가능성이 높은 5개 프로젝트(체코 원전, 파푸아뉴기니 LNG, 나이지리아 비료, 모잠비크 LNG AREA4, 가덕도 신공항)의 일부 수주 반영이다. 3분기 중 체코 원전 계약으로 전망했으며, 약 4조원으로 추정했다. 4분기 중 가덕도 신공항 수주를 전망했으며, 약 5.5조원으로 추정했다. 3분기 분양 목표는 7,153세대이며, 4분기에 3,178세대 분양 계획이다.

투자의견 Buy 유지, 목표주가 20,000원으로 하향

대우건설 투자의견 Buy를 유지하며, 목표주가는 기존 49,000원에서 20,000원으로 하향한다. 목표주가는 26년 EPS 추정치에 Target P/E 14.0배를 적용했다. 원전 일정 지연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하향했다. 하반기 중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2027~28년에는 베트남, 체코, 미국에서의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이다. 원전의 수주 여부에 따라 주가의 상승의 여지는 존재한다.

2026년 08월 05일 | 기업분석_기업분석(Report)

BUY

목표주가(12M) 175,000원(유지)
현재주가(08월04일) 98,600원

Key Data

KOSPI 지수(pt)	6,358.95
52주최고/최저(원)	149,500/66,900
시가총액(십억원)	8,805.0
시가총액비중(%)	0.17
발행주식수(천주)	89,300.0
60일 평균거래량(천주)	590.4
60일 평균거래대금(십억원)	69
외국인 지분율(%)	26.75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생명보험 외 3인	29.62
국민연금공단	13.35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1,163	21,671
영업이익(십억원)	2,312	2,125
순이익(십억원)	1,723	1,558
EPS(원)	19,653	17,938
BPS(원)	103,062	114,39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순영업수익	2,239.8	2,521.7	3,847.0	3,807.0
영업이익	1,205.8	1,376.8	2,472.1	2,413.0
세전이익	1,209.6	1,358.6	2,459.2	2,386.3
지배순이익	899.0	1,008.4	1,790.3	1,732.8
PER	4.32	6.68	4.92	5.48
PBR	0.53	0.83	0.93	0.84
ROA	1.4	1.3	1.7	1.4
ROE	12.3	12.5	18.8	15.3
DPS	3,500	4,000	7,300	7,000
배당성향	38.2	36.8	38.4	39.8
배당수익률	8.0	5.3	7.4	7.1



Analyst 교연수 yeonsookoh@hanafn.com

삼성증권 (016360)

2Q26 Re – 판관비 증가로 인한 컨센 하회

2026년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3% 하회

2026년 2분기 연결 지배주주순이익은 4,882억원(YoY +108.1%, QoQ +8.3%)으로 컨센서스 (5,032억원)를 3.0% 하회했다. 2분기 연환산 연결 ROE는 23.2%(YoY 10.5%p+, QoQ +1.0%p) 기록했다. BK와 운용손익은 견조한 실적 시현했으나, 성과급 지급에 따른 판관비가 YoY 40%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소폭 밑돌았다. (이하 별도 기준)

[브로커리지] 2분기 위탁매매 수수료손익은 4,398억원(YoY +171.2%, QoQ +25.9%) 기록했다. IBKR 관련 거래수익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서비스가 5월 12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분기 실적 기여도는 아직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WM 수수료손익은 랩어카운트 판매 확대에 힘입어 876억원(YoY +166.3%, QoQ +24.0%) 기록했다.

[이자] 이자손익은 1,543억원(YoY +8.6%, QoQ -2.6%) 기록했다. 신용공여잔고가 1분기 5.3조원에서 2분기 5.6조원으로 증가하며 신용공여이자수익은 YoY 33%/QoQ 5% 증가했으나,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비용이 동반 증가했다.

[IB 및 기타부문] IB 및 기타수수료손익은 부동산PF 리파이낸싱 딜 중심으로 수익이 증가하며 944억원(YoY +46.0%, QoQ +25.1%) 기록했다. [트레이딩] 운용 및 기타손익은 채권금리 상승 영향에도 불구하고 캐리 중심의 채권운용 전략이 성과를 보이며 2,672억원(YoY +54.3%, QoQ +31.1%) 기록했다. [판관비] 판관비는 4,074억원(YoY +39.8%, QoQ +45.7%) 기록했다. 이 중 인건비는 약 2,376억원(YoY +29.6%), 세금과공과 계정은 459억원(YoY +378.6%) 기록했다. 교육세는 QoQ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75,000원 유지

삼성증권에 대해 투자 의견 'BUY', 목표주가 175,000원 유지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출시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거래대금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현재 주가는 P/B 0.9배, 기대배당수익률 7.4%(DPS 7,300원, 연결 배당성향 36.4% 가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업황 둔화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경우 증권주 밸류에이션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삼성증권은 내년 3월 이전 밸류업 공시를 계획하고 있어, 중장기 주주환원을 50%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될 경우 주주환원 기대가 재차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08월 05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08월 04일

썬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9,630원

알에프에이치아이씨(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8,75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31,250원

케이엠더블유(032500)

BUY | TP 70,000원 | CP 16,250원

아이씨티케이(456010)

BUY | TP 60,000원 | CP 14,030원

우리넷(115440)

BUY | TP 25,000원 | CP 7,130원

RF머트리얼즈(327260)

BUY | TP 75,000원 | CP 29,95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19,370원

유비쿼스(264450)

BUY | TP 22,000원 | CP 10,12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5,330원

세나테크놀로지(061090)

BUY | TP 80,000원 | CP 44,700원

통신 장비

엔비디아의 통신 시장 진출은 큰 기회 요인입니다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에서 AI 기지국으로 사업 확장 중

최근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에 이어 AI RAN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나서는 가운데 DU에 이어 RU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최근 수년간 GPU가 데이터센터에 깔리면서 큰 수혜를 받은 엔비디아가 이제 AI 기지국에 GPU 내장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엔비디아가 AI 기지국 진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저지연 실시간 AI 처리를 위해 전국의 통신망과 엣지 컴퓨팅을 결합하여 AI 생태계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과거 중앙 집중형 데이터센터에서 벗어나 자율주행/로보틱스/스마트팩토리 등 현실 세계의 기기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분산 지능형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 통신장비 산업 진출은 경쟁 심화보단 시장 확대 역할 수행할 듯

이제 AI의 중심이 가상의 학습 단계를 넘어 로봇/자동차/공장 등 피지컬 AI로 이동하면서 데이터 처리를 지연 없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현장 근처의 고성능 연산 장치가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기지국이 단순 신호 중계 역할을 넘어 엣지 컴퓨팅 기반의 AI 추론 기능을 수행하며 실시간 응답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엔비디아는 전력/네트워크/기지국/데이터센터를 하나로 묶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에 이어 기지국 시장에까지 진입에 따라 엔비디아에 밀려 기존 통신장비업체들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우려한다. 핵심 부품과 플랫폼 장악력을 확보하고 DU를 기반으로 시장 잠식에 나설 것이란 의견이다. 하지만 결과는 국내 통신장비 업체에 호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M/S 하락보다는 시장 확대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AI 기지국 확산 명분 하에 각국 규제 기관 5G/6G 투자 독려할 것

아직까지도 주식 시장에서는 왜 5G/6G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소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그런데 AI 기지국이 그 해답이 되어 줄 것이다. 결국 통신사들이 5G/6G 투자를 통해 AI 기지국 구축을 완성하고 피지컬 AI를 통해 신성장을 도모할 것이며 각국 규제 기관 역시 피지컬 AI 성공을 위해 5G/6G 투자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중소 아웃소싱 업체들의 대부분은 RU 부품, 프론트홀, 인빌딩 쪽에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와는 달리 사실상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와 부딪힐 일이 없다. 오히려 AI 기지국 시장의 확대는 국내 아웃소싱 장비 업체 입장에서 시장 확장의 기회를 누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엔비디아가 AI 기지국 비즈니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피지컬 AI가 5G SA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KMW/RFHIC/HFR/LIG아큐버 등 무선 통신장비 업체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높일 것을 권한다.



Analyst 김용식 pro1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

2026년 8월 5일 | 산업분석_Update

Overweight

Top Picks 및 관심종목

*CP 2026년 8월 4일

GS건설(006360)

BUY | TP 36,000원 | CP 28,750원

LX하우시스(108670)

BUY | TP 48,000원 | CP 33,350원

건설

2026년 세제개편안

종부세 개편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금액기준으로 세율 변경, 거주용 완화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에 관한 개편이 있었다. 크게 1)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60%→70~80%), 2)기본 공제금액 변경(1주택거주 14억원, 1주택비거주 9억원, 그외 4억원+(5억원×거주주택가액비율)), 3)세율 일원화, 4)세부담상한 조정(150%→200%) 등이 있었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증가하여, 시가기준 20억원까지는 종부세가 거의 안나온다. 그리고 30억원(시가)까지도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종전보다 세액이 감소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상 구간에 진입하는 가격(약 시가 35억원 추정)의 경우 종전보다 세액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가격일수록 세액은 누진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공제 금액은 감소했다.

양도세 개편안: 장특공 개편, 종과세율 일시완화, 조정지역 매입임대APT 개편

양도세와 관련한 개편안도 있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1)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점진적 변경, 2)공제 한도 신설(28년 20억원, 29년부터 10억원)하는 안이다. 양도세 종과세율을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27년 +5%p/+10%p, 28년 +10%p/+15%p)하는 안도 있었다. 그리고 조정지역의 매입임대(8년 장기일반매입임대, 4년 단기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종과배제 및 장특공제 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개편안도 있었다.

영향: 27년까지 1주택실거주 목적의 매매거래 활성화, B2C 인테리어 수혜주

2028년까지 1주택 실거주 목적의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 배경에는 1)다주택자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 장기보유 아파트의 매물 출회, 2)1세대1주택 거주용 아파트에 대한 수요 증가가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종과세율이 2027~2028년에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환경에서, 종부세 부담은 커지기에 일부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조정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보유자도 양도세 부담이 2028년 이후부터 커질 수 있어, 매도 의지가 강해질 수 있다. 장기보유 아파트의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이 2028년부터 커질 수 있고,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도 갈아타기를 시도할 유인이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매물 출회에서 거주목적의 1세대1주택 수요가 나타나면서, 매매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매매거래에 따른 인테리어 수요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LX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와 같은 B2C 인테리어 업체들이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다.



Analyst 김승준 sjunkim@hanafn.com

2026년 8월 4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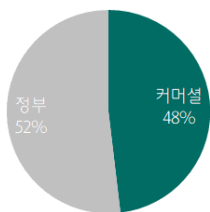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193.14 USD
CP(8.3) 147.76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정보기술
주요 영업	소프트웨어
홈페이지	www.palantir.com
시가총액(십억USD)	301.2
시가총액(조원)	430.5
52주최고/최저(USD)	207.52/106.37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9.47
블랙록	8.23
주가 상승률	1M 6M 12M
절대	(2.8) (20.4) (21.8)
상대	(4.4) (30.3) (41.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866	4,475	7,821	11,110
영업이익	310	1,414	4,603	6,667
순이익	1,002	1,916	3,903	5,286
EPS(USD)	0.41	0.75	1.52	2.08
EPS(YOY, %)	56.2	82.9	102.7	36.8
ROE(%)	10.9	26.2	37.0	33.5
PER(배)	385.4	279.2	83.5	59.1
PBR(배)	35.4	57.3	26.6	17.4
배당률(%)	0.0	0.0	0.0	0.0

주: 영업이익, 순이익은 조정(Non-GAAP) 기준
자료: 팔란티어,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김재민 jamie@hanafn.com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팔란티어 (PLTR.US)

미국 사업 모멘텀 강화, 전망도 대폭 상향

미국 커머셜 149%, 전체 매출 성장 93%로 가속화, Rule of 40 155pt (컨센 138)

2분기 주요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시현을 이어갔다. 매출액 19.4억 달러로 YoY 93% 성장, 사상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조정 OPM 62%를 달성, 'Rule of 40'는 155pt(컨센 138)로 12개 분기 연속 상승세다. 미국 커머셜 매출 7.6억 달러로 YoY 149% 증가, 전분기 133%에서 재가속, 시장 우려였던 성장 둔화 논란을 해소시켰다. 미국 정부향 매출도 8.1억 달러로 90% 성장하며 가속화를 이어갔다. 미국 전체 매출이 15.7억 달러(+115% YoY, +23% QoQ)로 전사 매출의 81%를 차지했다. 해외사업은 커머셜 매출 1.8억 달러(+26%), 정부향 매출 1.8억 달러(+42%)를 기록했다. TCV 계약체결은 34억 달러(+49%), RPO 49억 달러(+103% YoY, +10% QoQ)를 달성했다.

2026년 가이던스 매출 성장 82%, 조정 OPM 60%로 상향조정

3분기와 연간 가이던스 상향폭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다.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액 21.6억 (+83%), 조정 OPM 59.9%(+9.1ppt)로 컨센을 각각 8.5%, 2.5ppt 상회했다. 조정 OPM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 낮은 것은 3분기에 신규 입사, 마케팅 캠페인 개시 등 계절성 때문이다. 2026년 연간 가이던스는 매출액 81.5억(+82%), 조정 영업이익 48.9억(OPM 60%)로 기존대비 각각 6.5%, 10% 상향조정했다. 매출 성장률 기준 기존 71%에서 82%로 11ppt 상향으로 동사 기준 사상 최대 상향폭이다. 미국 커머셜 매출에 대한 전망은 기존 '120% 이상 성장'에서 '134% 이상 성장'으로 상향하며 34.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6년 'Rule of 40' 전망은 기존 129에서 142로 13pt 상향되었다.

미국 사업 모멘텀 지속 기대하는 이유

미국 사업 선전 이유는 크게 4가지다. 1)기업의 'Sovereign AI' 인식 확대가 신규 수요 창출 속도를 높이며 미국 커머셜 TCV 21.3억 달러(+153% YoY, +81% QoQ)로 직결되었다. 기업이 데이터, 로직, 보안 통제권을 직접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기존 고객의 계약 확대 지표인 NRR이 157%로 압도적이다. 파일럿 단계에서 전사 확대 전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PLTR의 AIP 경쟁력을 입증하는 지표로 판단된다. 3) PLTR의 AIP 스택과 FDE 실행력이 여전히 경쟁 우위로 작용하고 있다. 4) 미국 정부향 기존 프로그램 실행과 신규 수주가 작동하며 성장률이 가속됐다. 미국 국방부 관련 TTM 매출은 국방 예산의 25bp 미만으로 침투 여지가 크다. AI 모델사와의 경쟁 속에서 커머셜 수요 변화 가능성, 밸류에이션 부담 등이 영향을 주며 주가는 YTD -29%로 부진한 상황이다. 1)미국 정부 & 커머셜 시장에서 입증된 경쟁력, 2) 선행지표(미국 커머셜 TCV +153%, RDV +124%)가 지지하는 향후 실적 전망과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 3) 예상보다 빠른 매출 성장과 강력한 수익성 지표 (OPM 62%, FCF마진 63%)를 고려하면 주가 반등 여지는 높다고 판단된다. 실적 발표 전 주가는 12M FWD PSR 35배 수준이며, 시장 평균 목표주가(193)는 최근 2년 평균 멀티플인 54배 수준이다.

2026년 8월 4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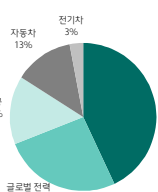
미국

TP(컨센서스) 473.17 USD
CP(8.3) 438.23 USD

Key Data

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뉴욕거래소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eaton.com
시가총액(십억USD)	170.2
시가총액(조원)	243.6
52주최고/최저(USD)	438.7/311.9
주요주주 지분율(%)	
뱅크드	9.85
블랙록	7.86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0.0 20.9 14.9
상대	9.1 16.0 3.9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27,448	27,448	32,525	36,132
영업이익	5,209	5,209	6,451	7,589
순이익	4,087	4,087	4,392	5,660
EPS(USD)	12.1	11.1	13.5	15.8
EPS(YOY, %)	0.0	(8.2)	17.7	17.3
ROE(%)	20.2	21.6	23.3	24.7
PER(배)	33.3	28.7	32.5	27.7
PBR(배)	7.1	6.4	7.7	6.7
배당률(%)	1.1	1.3	1.0	1.1

주: 조정 기준

자료: Eaton, Bloomberg 시장 예상치, 마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이턴코퍼레이션 (ETN.US)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변화에 부합

2Q26 Re: 미국 캐파 증설 효과 양호, 15년치 데이터센터 수주잔고

매출액 85.3억 달러(YoY +21%, Organic +14%), 조정 EPS 3.15달러(+7%)로 컨센(81.6억 달러, 3.07 달러)을 모두 상회했다. 매출 성장률에는 Boyd 인수 효과 7%p가 반영되었다. 1분기에서 2분기로 전환하며 역대 가장 큰 분기별 생산 출력 확대가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캐파 증설의 효과로 매출은 Organic 기준 +18%, 마진은 190bp 증가했다. 2분기 IEEPA 환급으로 인한 영향은 300만 달러 미만으로 EPS 기준 0.1달러 미만이다.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수주잔고는 307GW로 2025년 속도 기준으로 15년치에 해당한다. 이 수주잔고 중 20%가 단기적으로 전환되며 대부분은 2028년 이후 인도로 이어질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를 넘어서는 구조적 전력 트렌드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전력 부문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상업/기관, 유틸리티, 산업 수요가 모두 견고했다. 2분기 전체 전력 수주는 mid-to-high-teens를 달성했다. 데이터센터를 넘어서 리쇼어링과 전력망 현대화 포트폴리오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북미 전력 부문 매출 성장은 +18%로 주로 데이터센터(Organic 기준 +65%) 강세에서 기인했다. 전년 대비 마진 하락은 투입 비용 증가 때문이며 2분기와 3분기 초에 취한 가격 인상 조치로 하반기에는 대체로 가격 상승분과 원가 상승분이 수렴하는 중립적인 영향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력 매출은 +44% 증가했으며 Boyd 인수로 인한 25%가 포함되었다. 4분기로 예정했던 가격 인상을 3분기로 앞당겼다. 항공우주 매출은 +13%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상업용 OEM 부문이 두드러졌으며 Ultra PCS 인수가 6%p의 성장 기여와 마진 증익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3분기 EPS 가이드선스 컨센 부합

FY2026년 연간 Organic 매출 성장률 가이드선은 중간값 기준 +12%으로 다시 한번 200bp 상향조정했다. 북미 전력(+15%, 200bp 상향조정)과 글로벌 전력(+12%, 450bp 상향조정)의 영향이 반영되었다. 3분기 조정 EPS 가이드선으로 3.51달러(YoY +14%)를 제시하며 컨센에 부합했다. 개별적인 가격 인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어 가격 인상 효과는 하반기에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우려했던 북미 전력 OPM은 원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여전히 낮으나 27.5%로 QoQ 190bp 증가했다. 800V DC 관련하여 SST는 고객사로부터 기술적으로 앞서있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DC 차단기와 냉각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어 800V DC 통합 솔루션 패키지 판매에 유리하다. 글로벌 전력기기 섹터 Top-pick을 유지한다.

2026년 8월 4일 | Global Equ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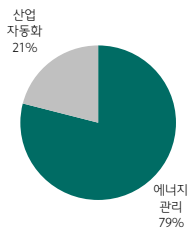
프랑스

TP(컨센서스) 323.08 EUR
CP(8.3) 290.10 EUR

Key Data

국가	FRANCE
상장거래소	EN Paris
산업 분류	산업재
주요 영업	전기 장비
홈페이지	www.se.com
시가총액(십억EUR)	167.6
시가총액(조원)	276.3
52주최고/최저(EUR)	294.9/208.8
주요주주 지분율(%)	
평가	7.72
선 라이프 파이낸셜	4.54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6 16.2 35.6
상대	2.3 10.9 21.5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EUR)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40,152	40,152	44,721	49,105
영업이익	6,699	6,699	8,042	9,399
순이익	4,163	4,163	5,422	6,581
EPS(EUR)	8.6	7.8	10.2	12.1
EPS(YOY, %)	0.0	(9.0)	29.9	18.9
ROE(%)	18.4	18.4	21.5	22.6
PER(배)	31.7	31.7	28.6	24.0
PBR(배)	4.5	5.6	6.1	5.4
배당률(%)	1.6	1.8	1.6	1.8

주: 조정 기준

자료: 슈나이더일렉트릭, LSEG 시장 예상치, 하나증권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슈나이더일렉트릭 (SU.FP)

약점을 극복하는 중

1H26 Re: 오랜만의 산업자동화 턴어라운드

상반기 매출액 212억 유로(YoY +9.8%, Organic +14%), 조정 EPS 4.79유로(+28.5%)로 모두 컨센(200억 유로, 4.49유로)을 상회했다. 2분기 매출은 에너지관리(EM) +18%, 산업 자동화(IA) +11%로 전 사업부문 모두 높은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IA 매출 성장이 예상을 상회했으며 마진은 +50bp 증가했다. 소프트웨어 부문인 Aveva를 제외한 레거시 산업자동화의 수익성은 아직 회복하지는 못했다. 현재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수요가 견조하며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으며 전력망을 비롯한 인프라 모든 부문이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 판매된 거래 금액 중 가격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부분의 비중은 1분기 2%에서 2분기에는 4%로 높아졌다.

2분기 중국에서 고성장, 데이터센터 이외의 전기화에 주목할 시점

지역별로는 중국에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2분기 산업자동화 부문 매출은 18.6억 유로로 반등했는데, 성장이 주춤했던 중국시장에서 +21% 증가했다. 에너지관리부문 역시 중국에서 +20% 증가하며 미국(+21%)과 함께 성장을 견인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로 인한 견인 효과로 한정되지 않으며 건물, 공장, 인프라 등 모든 전기화의 가속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특히 반도체와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전기화에 집중한 국가로 전력망 프로세스와 산업 전기화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동사는 중국형 믹스에서 부진한 주거용 제품을 줄이고 균형 잡힌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FY2025년 기준 최종 수요처 익스포저는 데이터센터 30%, 빌딩 29%, 산업 27%, 인프라 14%로 구성된다.

FY2026년 연간 가이던스 상향조정

데이터센터 가속화에 따라 최근 1년간 생산능력을 확대했다. 메모리나 부품에서의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안전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적인 캐파 확대는 2년 미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 대응을 위한 선제적 가격 인상과 생산성 개선의 조기 달성 영향으로 FY2026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조정했다. Organic 기준 매출 성장률은 기존 +7~10%에서 +10~13%로, 조정 EBITDA 성장률은 기존 +10~15%에서 +14~19%로 상향조정했다. PEER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제품 가격 인상으로 극복하고 있다. SST는 시제품 테스트 단계로 경쟁사와 유사한 타임라인이다. 12MF PER은 5년 평균인 28.6배 수준으로 산업자동화 반등 고려할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40,000	-8.5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8/3	1,718,000	1,577,000	-8.21%	- HBM4 본격 출하와 서버용 DRAM·고성능 eSSD 수요 확대에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일반 메모리 매출의 최소 30%를 장기 공급계약으로 확보해 중장기 이익 가시성 상승
현대차 (005380.KS)	8/3	388,000	392,500	1.16%	- HEV 비중 사상 최대 수준까지 확대되며 제품 믹스 개선 지속 - 단순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모빌리티·AI 프리미엄 구간 진입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185,000	3.77%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한국금융지주 (071050.KS)	8/3	206,500	202,500	-1.94%	- 중시 거래대금 증가와 IB-트레이딩 부문 호조로 높은 이익 체력, ROE 개선세 지속 전망 - 발행어음 운용 경쟁력과 IMA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조달 규모 개선 기대
BNK금융지주 (138930.KS)	8/3	15,170	15,110	-0.40%	3분기 대손비용 2천억원 이하로의 감소 여부가 중요 체크포인트 - 추가 자사주 매입·소각으로 2026년 총주주환원율이 46%까지 상승할 전망
C제일제당 (097950.KS)	8/3	191,400	195,100	1.93%	- 바이오 부문의 판가 회복과 원가 부담 완화로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 - 미주 중심의 글로벌 식품 성장과 비주력 사업 재편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기대
풍산 (103140.KS)	8/3	71,200	70,500	-0.98%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두산퓨얼셀 (336260.KS)	8/3	24,550	28,600	16.50%	- 하반기 주기기 매출 회복과 독일향 공급계약 생산 본격화로 외형 성장 기대 - CHPS 낙찰 물량의 순차적 계약과 미국 데이터센터향 PAFC·셀스택 판매 확대 기대
제닉 (123330.KQ)	8/3	24,500	23,900	-2.45%	- 하이드로겔 마스크 수요 확대와 유통사·브랜드의 신제품 출시 증가로 고성장세 지속 - 높은 기술 진입장벽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도 부각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0.10%	+3.60%p	+62.69%	+9.24%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8/3	262,500	240,000	-8.57%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8/3	1,718,000	1,577,000	-8.21%	- HBM4 본격 출하와 서버용 DRAM·고성능 eSSD 수요 확대로 실적 성장세 지속 전망 - 일반 메모리 매출의 최소 30%를 장기 공급계약으로 확보해 중장기 이익 가시성 상승
삼성전기 (009150.KS)	8/3	1,142,000	1,185,000	3.77%	- AI 서버용 고용량 MLCC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급사들의 증설은 제한적 - AI 가속기용 FCBGA의 대형화·고다층화로 구조적 공급 부족 장기화 전망
아모레퍼시픽 (090430.KS)	8/3	130,000	131,900	1.46%	- 북미·유럽과 코스알엑스의 고성장으로 글로벌 실적 개선세 본격화 - 지역·채널 다각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멀티브랜드 기업으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키움증권 (039490.KS)	8/3	293,500	284,000	-3.24%	- 브로커리지와 ETF LP·PI 트레이딩 호조로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 - 해외주식 시장점유율 확대 가능성과 PBR 0.8배·배당수익률 7.7%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종산 (103140.KS)	8/3	71,200	70,500	-0.98%	- 전기동 가격 강세에 따른 메탈 이익과 해외 신동 자회사 수익성 개선 기대 2분기 이연된 방산 매출의 3분기 인식으로 실적 반등 예상
NAVER (035420.KS)	7/27	207,500	226,500	9.16%	- AI 탭 광고 수익화와 커머스 연계 강화로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 - 두나무 합병 및 네오클라우드 수주 구체화가 추가 재평가의 핵심 동력
SK이노베이션 (096770.KS)	7/20	121,400	111,300	-8.32%	- 윤활기유 호조와 SK온 적자 축소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 - 정제마진 강세와 그룹3 윤활기유 공급 부족으로 2026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대
KB금융 (105560.KS)	7/13	184,400	168,800	-8.46%	2분기 추정 순익 1.97조원으로 2조원에 육박해 지주사 설립 이후 분기 최대 순익 예상 - 홍콩 ELS 과징금 이슈 해소로 주주환원 확대 및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삼양식품 (003230.KS)	7/1	1,119,000	1,219,000	8.94%	- 미주·중국·유럽 중심의 해외 매출 고성장과 밀양2공장 가동을 상승으로 실적 성장 기대 - 중국 신공장 가동 및 추가 생산시설 검토로 해외 비중 확대와 단기 실적 모멘텀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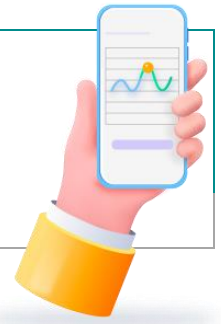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3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3.00%	+1.25%p	+34.22%	-19.25%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5%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미국시테크 TOP10 (485540)	2026.07.16	16,205	15,665	-3.3%	-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기술주 중 AI 관련 키워드 유사성이 높은 10개 종목을 선별하여 유동시가총액과 LLM 스코어링을 합산하여 편입 비중을 산정. 1위~3위 기업은 각각 20% 비중으로 편입해 집중도를 높인 구조 - 현재 핵심 편입 종목은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이며, AI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새롭게 부상하는 AI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	2026.02.24	15,160	12,015	-20.7%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KODEX AI반도체 TOP2플러스 (395160)	2026.02.27	29,560	36,300	22.8%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PLUS 글로벌 HBM반도체 (442580)	2026.07.16	106,895	94,610	-11.5%	- HBM(고대역폭메모리) 밸류체인인 핵심 제조사와 장비·부품·소재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HBM 집중 테마 ETF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 합산 비중이 75% 수준으로 핵심 제조사에 집중된 구조이며, 그 외 글로벌 장비, 부품 관련 기업까지 편입해 HBM 성장 모멘텀 전반의 수혜 기대
ACE 고배당주Plus 커버드콜액티브 (0199C0)	2026.07.16	9,980	8,970	-10.1%	- 고배당주 80%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0% 비중으로 편입하여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로 시장의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 - 포트폴리오의 30% 비중까지 콜옵션을 매도하는 구조로 월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고 비교سه 배당 종목을 편입하여 배당과 절세를 함께 추구. 향후 국내 데일리 옵션(ODTE) 도입 시 추가적인 배당 자원 확보 가능. 액티브 운용방식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커버드콜 비중 조절
TIME 글로벌우주테크 &방산액티브 (478150)	2026.07.16	21,300	21,435	0.6%	- 우주 산업의 성장과 방산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액티브 ETF로 시장 상황에 맞게 편입 종목과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 - SpaceX 상장 이후 본격화되는 우주 산업 투자 사이클과 글로벌 주요국들의 국방비 증액 추세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TIGER 글로벌 AI사이버보안 (418670)	2026.07.16	18,430	17,130	-7.1%	- 글로벌 기업 중 사이버보안 연관 산업에서 매출이 50% 이상 발생하는 기업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패시브 ETF - AI 확산 과정에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이 AI로 인한 시장 잠식 우려 대상에서 AI 도입 시 필수 인프라로 전환됨에 따라 AI 보안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 기대
KODEX 미국 AI전력핵심인프라 (487230)	2026.07.16	23,200	21,170	-8.8%	- AI 성장 과정 속에서 전력 인프라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핵심 분야로 관련 기업들은 공급자 우위 구조 속에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 - 주요 빅테크의 파트너로 선정되고 있는 미국 전력 생산·송배전·데이터센터 핵심 10개 종목에 집중 투자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15시 30분 기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CHAT (생성형 AI 및 기술)	2026.07.16	83.73	85.30	1.9%	• 생성형 AI 관련 기술을 통해 매출을 창출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로 AI 밸류체인 내 실질적인 성장 모멘텀을 누릴 것으로 기대 •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유연한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하며 OpenAI와 앤트로픽 지분을 보유한 소프트뱅크그룹과 SK텔레콤을 편입해 비상장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대한 간접 노출까지 확보한 차별화된 구성이 특징
KBWB (미국 은행)	2026.07.16	98.37	97.05	-1.3%	• IPO와 M&A 시장 회복, AI 인프라 자금조달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미국 대형은행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 • 미국 금융 섹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완화 기조 속 주주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 국면이 전개될 전망
CBR (사이버 보안)	2026.07.16	91.89	93.91	2.2%	• 사이버보안 기업으로 분류되는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하는 대표적인 사이버보안 테마 ETF • 상위 5개 종목 합산 비중을 40%로 제한하여 대형주에 집중된 구조이면서도 그 외 네트워크 인프라, 사이버 방산 관련 기업까지 함께 편입해 사이버보안 밸류체인 전반에 노출 가능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5.14	12.3%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545.46	60.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비된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DRAM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2026.06.22	80.72	51.13	-36.7%	• AI 혁명 및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컴퓨터 메모리 및 스토리지 밸류체인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한 순수 메모리 테마 ETF • 광범위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기존 ETF와 달리, HBM(고대역폭메모리) 및 차세대 DRAM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제조사에만 집중 투자하여 차별화된 고성장 모멘텀 수혜 기대
GRID (전력망 및 스마트그리드)	2026.07.16	177.67	182.02	2.4%	• 스마트그리드 및 전력 인프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괄적으로 편입하는 전력 인프라 테마 ETF •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사이클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 맞물리며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 모멘텀 지속될 것으로 기대
XBI (바이오테크)	2026.07.16	152.00	147.31	-3.1%	• 미국 바이오테크 종목 약 150개를 동일가중 방식으로 편입하는 분산형 ETF로 중소형 종목들의 임상 및 M&A 이벤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구조 • 글로벌 빅파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해 M&A를 비롯한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바이오 업종 전반의 투자 심리 개선 기대

주1: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주2: 전일종가는 한국 시간으로 전영업일 06시(썸머타임 적용시 05시)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8.2	8.3	8.4	8.5	8.6	8.7	8.8
	- 일본 7월 제조업 PMI (54.5, 이전치 54.7) - 한국 7월 제조업 PMI (53.1, 이전치 52.1) - 중국 7월 레이팅독 제조업 PMI (50.9, 이전치 51.7) - 유로존 7월 제조업 PMI (51.9, 이전치 52.0) - 미국 7월 제조업 PMI (53.9, 이전치 53.8) - 미국 7월 ISM 제조업지수 (55.6, 이전치 73.0) - 미국 7월 건설지출 (-0.1%, 이전치 0.1%)	- 한국 7월 CPI (2.8%, 이전치 3.2%) - 한국 7월 근원 CPI (2.6%, 이전치 2.5%) - 미국 6월 내구재 주문 (E 0.3%, 이전치 -4.5%)	- 일본 7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1.9) - 중국 7월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E 53.7, 이전치 54.1) - 유로존 7월 서비스업 PMI (E 51.6, 이전치 51.6) - 유로존 6월 PPI (E 4.6%, 이전치 5.9%) - 미국 7월 서비스업 PMI (E 53.6, 이전치 53.6) - 미국 7월 ISM 서비스지수 (E 54.5, 이전치 54.0)	- 독일 6월 공장수주 (E 0.5%, 이전치 1.9%) - 유로존 6월 소매판매 (E 0.1%, 이전치 0.2%)	- 일본 6월 선행지수 (E 116.5, 이전치 116.8) - 일본 6월 동행지수 (E 118.1, 이전치 118.5) - 미국 7월 실업률 (E 4.2%, 이전치 4.2%)	
8.9	8.10	8.11	8.12	8.13	8.14	8.15
- 중국 7월 PPI (E 3.8%, 이전치 4.1%) - 중국 7월 CPI (E 0.8%, 이전치 1.0%)	유로존 8월 섹터스 투자자기대지수 (E --, 이전치 -3.1)	- 미국 7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 (E --, 이전치 97.4) - 미국 7월 기존주택매매 (E --, 이전치 -2.4%)	- 한국 7월 실업률 (E --, 이전치 2.7%) - 일본 7월 공작기계수주 (E --, 이전치 52.7%) - 미국 7월 CPI (E --, 이전치 3.5%) - 미국 7월 근원 CPI (E --, 이전치 2.6%)	- 일본 7월 PPI (E --, 이전치 7.1%) - 미국 7월 PPI (E --, 이전치 5.5%)	- 한국 7월 수출물가지수 (E --, 이전치 48.9%) - 한국 7월 수입물가지수 (E --, 이전치 20.6%) - 유로존 2분기 GDP (E --, 이전치 0.4%) - 미국 7월 소매판매 (E --, 이전치 0.2%) -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54.4)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